불교복지 30년…“미래 100년 나눔 꽃 피우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창립 30주년 기자간담회

6월 11일 30주년 법회 · 세미나
‘나는 절로’ 확대…‘선명상’ 중점
불교복지아카데미 등 신규 사업
30년史 · 불교사회복지편람 발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통한 자비실천에 앞장서 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종교를 넘어 사회복지계 전반 대표 법인으로 성장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그간의 업적을 토대로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재단은 올해 다양한 창립 30주년 행사를 진행한다. 6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드레곤시티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대법회 및 세미나’가 봉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종단 스님들, 정부부처 관계자, 사회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시설이용자들과 함께 3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재단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가치·비전을 담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에는 재단 30년 역사를 정리한 ‘30년사(史)’가 발간된다. 1995년 2월 출범 이후 단일 재단으로는 최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빛난 불교사회복지의 흐름이 포관적으로 서술될 예정이다. 또 재단과 역사를 함께 해온 사부대중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시선으로 재단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사회복지법인의 현황을 정리한 ‘불교사회복지편람’ 발간도 준비 중에 있다. 발간을 위해 재단은 현재 불교계 법인과 산하시설 현황을 조사 중으로 시설과 교구본사, 운영지원사찰, 중앙종무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며 6월부터는 유선 추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편람은 불교사회복지분야의 총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불교사회복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문성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불교계 사회복지 정책 수립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재단은 12월 열릴 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30년사’와 ‘불교사회복지편람’을 봉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신규사업도 시작한다. 불교사회복지협의회 발족을 위해 단체들과 논의 중이다. 이는 불교사회복지단체 간 교류 확대를 통한 불교적 가치 확산과 법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 전국 불교복지기관 및 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를 통해 법인은 다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복지실천활동을 펼치는 사부대중이 좀 더 마음을 모아 여법한 복지불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불교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제안, 연대사업 전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사회복지 아카데미를 구성,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인재 양성에 힘쓴다. 3~11월 총 17회 연수 및 교육을 진행하며 필수과정(2회), 직급별 과정(8회), 직무별 과정(6회), 영역별 과정(1회) 등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교육과 대면연수, 해외 연수 등으로 진행된다.

30년 간 꾸준히 진행해 온 재단 대표 브랜드 사업인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대학생 공양 지원 프로그램 ‘청년밥심心’, 불교아동미술큰잔치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특히 재단은 자살예방을 위한 치유와 돌봄을 위해 선명상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마음을 보듬고 챙겨 스스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려 온전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불교복지활동으로 쉼 없이 계속됐다”면서 “30년간 성장과 성숙을 이뤄낸 재단은 더 원만하고 포용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미·홍주읍성 가톨릭 성지화 멈춰야 합니다”

종교편향특위, 3월 4일 충남도청 관계자와 면담

천주교 박해와 순교 역사만 덧씌워져 성지화가 추진되고 있는 해미읍성과 홍주읍성 등 충청남도 사적지에 대해 불교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교편향특위)는 3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의장실에서 충남도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공공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사적지에 특정종교 성지화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천주교 순례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천주교 2027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지차체인 만큼, 이번 종교편향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이날 위원장 선광 스님은 “충남도가 관할하는 서산 해미읍성과 홍성군의 홍주읍성은 사적지로 보존돼야 마땅하지만, 곳곳에 순교 상징물이 설치돼 있어 순교성지로만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역사왜곡과 종교편향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광 스님은 “공공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지 말고 다양한 역사와 종교적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교편향특위 스님들도 해미읍성·홍주읍성 성지화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범수 충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오늘 스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한다. 다만 편향적인 행적의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종교 간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진행할 때 유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종교편향특위는 면담에 앞서 회의를 열어 충청남도의 종교편향 및 불교왜곡 현황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차후 일정을 잡아 김태흠 충남도지사와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들 “권익 향상” 다짐

3월 5일 서울 진관사서
‘역대 종회의원 간담회’
선배스님들 고견 경청
향후 종책 활동 논의해



조계종 제18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과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불교 발전과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았다.

제18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3월 5일 서울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서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는 선배스님들의 경험과 고견을 경청하고, 향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종책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역대 종회의원을 역임한 자민(7~9대)·일법(11·12·14대)·본각(11~13대)·계호(12~14대)·경륜(12~14대)·정성(13대)·일초(14대)·성정(14대)·도수(16대)·희유(16대) 스님을 비롯해 18대 종회의원 정운(17·18대)·철우(17·18대)·혜도(17·18대)·정관(17·18대)·진상(18대)·수경(18대)·혜성(18대)·법해(18대)·지인(18대)·설해(18대) 스님이 참석했다.

제18대 비구니 종회의원 종책모임 회장 정운 스님은 개회사에서 “1대부터 17대까지 활동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 70여 명 가운데 18명 스님은 열반하셨고, 52명이 생존해 계신다”며 “후배 의원스님들의 요청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꺼이 응해주신 선배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에 선배스님들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자민 스님은 “처음에는 비구니 종회의원이 2명뿐이라 발언권을 얻기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그럼에도 똘똘 뭉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했고, 무사히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며 “지금의 활동 소신껏 이어가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본각 스님은 “당시 비구니 종회의원 님들의 자리는 제일 뒤였다. 그럼에도 종법 개정과 특별선원법 제정 등 여러 가지 일에 애써왔다”며 “생생한 종회 활동 경험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제18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전국비구니회와 역대 종회의원들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내영 기자



‘반야심경 한 호흡 챌린지’ 톡톡 튀는 신입 맞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x3).”

한 학생이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한 호흡에 〈반야심경〉을 쏟아냈다. 3월 6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한편에 마련된 불교학생회 신입 법우 모집 부스에서는 ‘〈반야심경〉 한 호흡에 말하기 챌린지’가 한창이다.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이 챌린지에서 성공한 학생들에게는 푸짐한 선물도 주어져 즐거움을 더했다.

이화여대 불교학생회(회장 고채영)는 3월 4일부터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챌린지와 함께 꽝 없는 뽑기를 통해 간식과 솜사탕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고, 인형탈을 쓰고 목탁을 치는 깜짝 이벤트도 마련해 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불교를 친근하게 알리기 위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 덕분에 이미 15명이 현장에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내영 기자

2025년 해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공고

특전 및 교육 프로그램
1. 팔만대장경 제작을 위한 판각 및 인경 교육 프로그램
2. 해외 성지순례를 통해 다른 나라의 불교와 승단의 체험 및 타종교와의 교류
3. 해외 대학(중국 칭화대, 일본 하나조노, 대만 법고산)과의 학술 교류 협정으로 유학 지원
4. 선교 일치를 위해 매 안거 해인총림 선원에서 일주일간 용맹정진
5. 해인동문회에서 매년 해인 장학금 지원
6. 해인사승가대학 졸업 후 일반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
7.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수준별 맞춤 교육 통한 외국어 수업

모집대상
- 신입생 ○○명
- 편입생·재입학생 ○명

전형일정
- 신 입 생 입방대기 : 2025년 3월 10일(월요일) 부터
- 서류접수 마 감 : 2025년 3월 22일(토요일)
- 신입생 갈마 및 입방 : 2025년 3월 23일(일요일)

